

최첨단 교육매체 종합강의동

대형강의실 및 각종 편의매장 들어서

95년 학원자주화투쟁을 기점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종합강의동 건설이 이제 그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당초 총학생회는 학내 공간 부족의 해결책으로써 약 4천여평의 종합강의동을 지어줄 것을 학교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 확정된 종합강의동의 연면적은 6천 5백 38평으로 당초 요구안에 비하면 약 2천여평이 확장된 것이다.

이처럼 연면적이 넓어진 데에는 우리학교 자체 필요에 의한 것도 있지만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경희호텔경영전문대학(경희호텔)의 총학생회에서 경희호텔에게도 공간을 확보해 줄 것을 학교측에 요구한 결과 우리학교 총학생회와의 타협 후 이를 학교측에서 수용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 공사는 지난 2월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허가문제로 착공예정일이 지연되 지난 7월 1일 허가를 받고 9월 3일 나산건설과 계약을 맺어 이제야 착공에 들어간 것이다.

오는 99년 2학기엔 사용이

가능하게 될 종합강의동은 냉난방 시설을 비롯, 3대의 엘리베이터가 구비되는 등 최첨단

시설이 갖추어 질 예정이며 층별로 들어서게 될 시설은 아래 표와 같다. (강남이 기자)

내 부 시 설	
지하3층	전기·기계실, 콜프연습장, 다목적 실습실
지하2층	학생 대식당, 교수식당
지하1층	복합매장, 은행, 우체국, 계단식 강의실(2백50인용×1)
지상1층	교무실, 전산관리실, 합동 교강사 후계실, 학생전시실, 강의실(60인용×4, 80인용×2)
지상2층	강의실(60인용×4, 80인용×3, 1백인용×1, 1백20인용×2)
지상3층	강의실(60인용×4, 80인용×3, 1백인용×1, 1백20인용×2)
지상4층	강의실(60인용×4, 80인용×3, 1백인용×1, 1백20인용×2)
지상5층	강의실(60인용×4, 80인용×3, 1백인용×1, 1백20인용×2)
지상6층	특수대학원, 교수연구실, 강의실(60인용×1)
지상7층	사회교육원, 교수연구실

체과대 체력관리센터 확장

교수·직원·학생에 이용기회 확대

체육과학대학은 기존의 트레이닝장(체육과학대학 1층)을 확장하여 일반 학생은 물론 교수, 교직원에게까지 이용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이번 체력관리센터 공사로 80평의 트레이닝장이 1백60평으로 확장되었으며 운동기기 25종 도입, 운동처방실, 사무실, 탁카룸(탁카룸 도입: 남70개, 여 30개), 대형거울설치등의 부대시설이 개선되었다.

오는 9월 개관하는 체력관리센터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체과대 학생(입회비 5천원, 월회비 2천원), 일반학생(입회비 1만원, 월회비 5천원), 교수 및 교직원(입회비 2만원, 월회비 1만원) 모두 9월부터 20일까지 접수와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다.

체력관리센터의 이용은 체육부학생의 경우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오후 3시30분부터 5시

30분까지(목요일 제외),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이며 일반회원은 오전 8시30분부터 10시까지, 오전 10시30분부터 3시까지(목요일 제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할수있다.

한편 체과대 권길조 주임은 "시설장내에 모든 기기는 경희가 주모의 것이니 항상 자기 것처럼 이용해주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방중 경기 패거 획득 U대회 체조 조성민 '은'

지난 방학중 개최된 각종 체육 경기에서 우리학교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먼저 지난 8월 16일부터 19일 간 시설리에서 개최된 '97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대표단 단장: 서재준 체과대 체육교수)에서는 조성민(체육4)군이 마루운동과 텀틀에서 각각 9,300점과 9,27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획득해, 은, 동메달을 차지했다.

같은 대회 배구에 출전한 엄종식(체과대 체육4), 명중재(체과대 체육3)군 금메달, 축구경기에 참가한 우성문(체육4)군은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지난 달 25일과 26일에 열린 제20회 대학연맹 태권도대회에서 우리학교 태권도부의 김보인(체과대 체육3), 이지은(체과대 체육3), 장순호(체과대 체육1)양이 금메달 3개를 확보하면서 여자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남자단체전에서는 김동현(체과대 체육4), 장순호(체과대 체육1)군이 각각 금메달을 차지해 금메달 3개를 거머쥔 동아대에 이어 준우승을 거두었다.

한편 연행된 오군은 지난 3일 증거불충분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현재 성동경찰서로 이송되어 수감중이다.

법대 동문활동 활발

법대 동문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법대 81학번 법조인으로 구성된 '81학번 법조인 동맹회'는 지난 방학중 법대 고시부(지도: 김용섭 교수) 학생 1백여명과 법대 교수를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후배들을 격려하고자 모인 이번 자리에서 동맹회 대표 민덕기 변호사는 후배 지원금 명목으로 5백만원을 운영선 학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법대 동문회가 설립되어 지난 6월 헌관식을 가졌다.

애지원, 국선관 식대인상

주,부식비 및 임금인상, 주방 노후집기교체등으로 애지원, 국선관, 학생회관 교직원식당 식대가 인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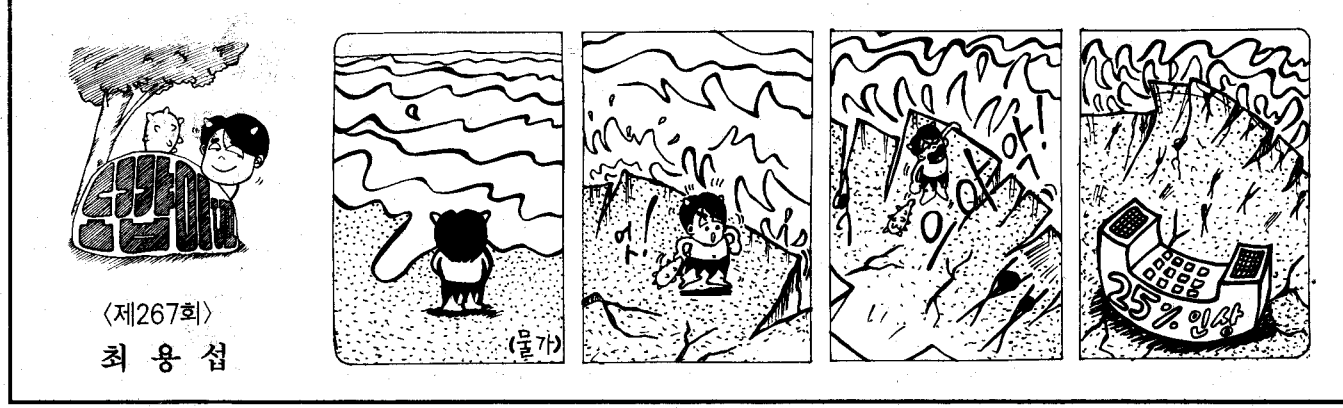
교직원식당은 애지원의 경우 2천5백원에서 2천7백원으로, 국선관과 학생회관이 2천7백원에서 2천9백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애지원 학생식당의 경우 1천5백원에서 1천6백원으로 조정되었다.

환경직 직원 15명 3백만원 기증

경희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 다른 이들의 마음을 뭉뚱하게 하고 있다.

지난 4일 우리학교 환경직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15명은 학교로부터 받은 보너스 중 20만원씩을 모아 학교에 발전기금으로 기증했다.

이는 자체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아무리 이번 보너스가 임금 동결로 인해 평상시 지급액 1백%가 지급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들이 받는 지급액이 30만원 안팎인 것을 볼 때 이번 기금은 그 어느 것보다 가치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황규영군 뺑소니 사고로 중태

후원모금 행사 계획, 준비중

환경학과에 재학중인 황규영(2)군이 지난 8월3일 신갈에서 뺑소니차에 치여 의식불명상태로 아주대학부속병원중환자실에 입원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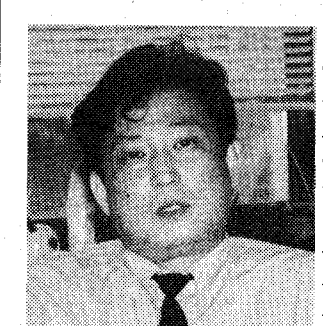
자연과학대학교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중 사고를 당한 황군은 하루에 1백만원정도의 병원비로 인해 이달 이후엔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뺑소니차주가 3시간

만에 자수를 하기는 했지만 배상능력이 없어 6천만원정도의 배상만을 받게 되었으며 아버지의 사업부도로 인해 가정형편 또한 좋지 못해 당장의 치료조차 어려운 상태이다.

한편 황군이 재학중인 환경학과에서는 모금활동, 후원자 모집, 일일차집등의 행사를 계획중이다.

□ 교수연찬회 공로패 수상자 김규현 교수

"디자인은 곧 나의 혼"



"디자인에는 혼이 담겨있어야 한다. 혼이 없는 디자인은 죽은 디자인이다." 산업디자인과 김규현교수는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지론을 단 두마디의 말로 모두 표현한다.

93년 경희의 역사책에 산업디자인과 교수란 이름을 기록한 후부터 그는 경희에 관련된 디자인의 우리학교 특유의 혼을 담으려 노력했다. 이런 노력을 기울여 온 그에게 지금에 서야 주어진 것은 공로패라는 상패다. 그가 학교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조금은 낮은 감도 있고 빈약한 점도 있지만 김교수는 그것에 개의치 않는다. 공로패 수상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그냥 웃기만 하는 모습이 그의 이런 마음을 모두 이야기하는 듯하다.

그의 손길에 가지않은 학교내 건물에 얼마나 있을까. 얼마전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 국제회의장의 건립, 도서관 통폐합사무실 디자인, 외국어대, 공과대의 환경 디자인, INFO페스티벌 전시디자인, 교육개혁박람회 전시장 디자인 등이 그의 작품(?)이다. 그는 그의 작품에 우리학교의 이념을 담으려 하였고 그것들로 하여금 경희의 발전된 모습을 나타내고 싶어했다.

경희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는 교수. 그가 가지는 캠퍼스에 대한 불만은 무엇일까.

김교수는 출근할때 가장 큰 불만을 느낀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분별하게 부착되어있는 플랜카드와 대자보가 캠퍼스의 모습을 흉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한 행위는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학교자체의 노력을 무산시키는 행위라고 그는 규정한다.

교수생활과 학교봉사활동을 모두하고 있는 그에 대해 가족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직접 건물을 만지고 보아야 학생들을 가르칠수 있는 그 무엇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며 가족들의 불만을 일축한다고 한다.

현재 전시디자인, 환경디자인, 디자인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교수는 "학생,교수간에 인간적 관계를 유지할수 있는 예의를 갖추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 또한 잊지 않았다. (김용운 기자)

고내단신

천리안 무료가입행사

PC통신 천리안 무료가입행사가 오는 12일부터 3개월간 시행된다.

우리학교 정보사회연구소가 주최, 대학주보사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주식회사 데이콤이 우리학교 온라인통신학교 이용을 위한 천리안 가입 및 우수이용자 포상을 주관한다. 온라인 희망자는 PC통신 천리안에 GUEST로 접속한 후 천리안 가입신청, 온라인통신학교 가입신청 순으로 선택하면 확인을 거쳐 즉시 개통되는데 가입비 1만원은 면제된다. 또한 우수이용자 10명을 선정해 상품을 증정하기도 한다.

2학기 복지장학생 선발

서울캠퍼스 인건복지위원회(인복위)에서는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2학기 복지장학생을 선발한다.

복지회관의 매장이나 매점, 자판기 등으로 받은 임대료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번 선발의 인원은 총 1백명으로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받게 되는데 지급대상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97학년도 현재 재학중인 학생 △97학년도 2학기 장학금(교내외 장학 및 성적, 근로장학 포함)수혜자 제외 △이전 학기 성적 2.0이상인 학생 △97학년도 1학기 복지장학생 수혜자 제외 △세부 선발점수의 총합이 75점 이상인 학생

위에서 말한 선발점수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학부모의 과제 정도, 학부모 거주지, 학부모 연령, 이전 학기 성적 등으로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은 내일부터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학부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통, 학부모 미과세 증명서 각 1통, 호적등본 1통,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1통, 이전 학기 성적증명서 1통, 심신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인복위에서 교부하는 신청서 및 추천서 1통을 인복위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총 2통 이상을 제출해야 하고 증명서 항목 중 재산세 항목이 없는 증명서는 무효 처리한다. 이번 선발의 최종 합격자 명단은 오는 24일 중앙대자보판에 게시할 예정이다.

구속학우 후원의 밤

'구속학우를 위한 후원의 밤'이 오는 11일 오후 4시부터 약 7시간 동안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열린다.

지난 8월 12일 연행되어 현재 구속 수감중인 김영필(경제4) 부총학생회장장과 문리대 학생회장 조득진(국문3)군을 포함, 현재 구속중인 학생 5명의 경지금 마련을 위해 열게 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구속학생의 소속 학과에서 준비한 공연과 음대 학생들이 준비하는 공연이 선보여질 예정이다.

그 외에 이날 학내 곳곳에서는 4개 학과에서 준비하는 '구속학우를 위한 주점'도 운영될 예정이다.

자동차 운전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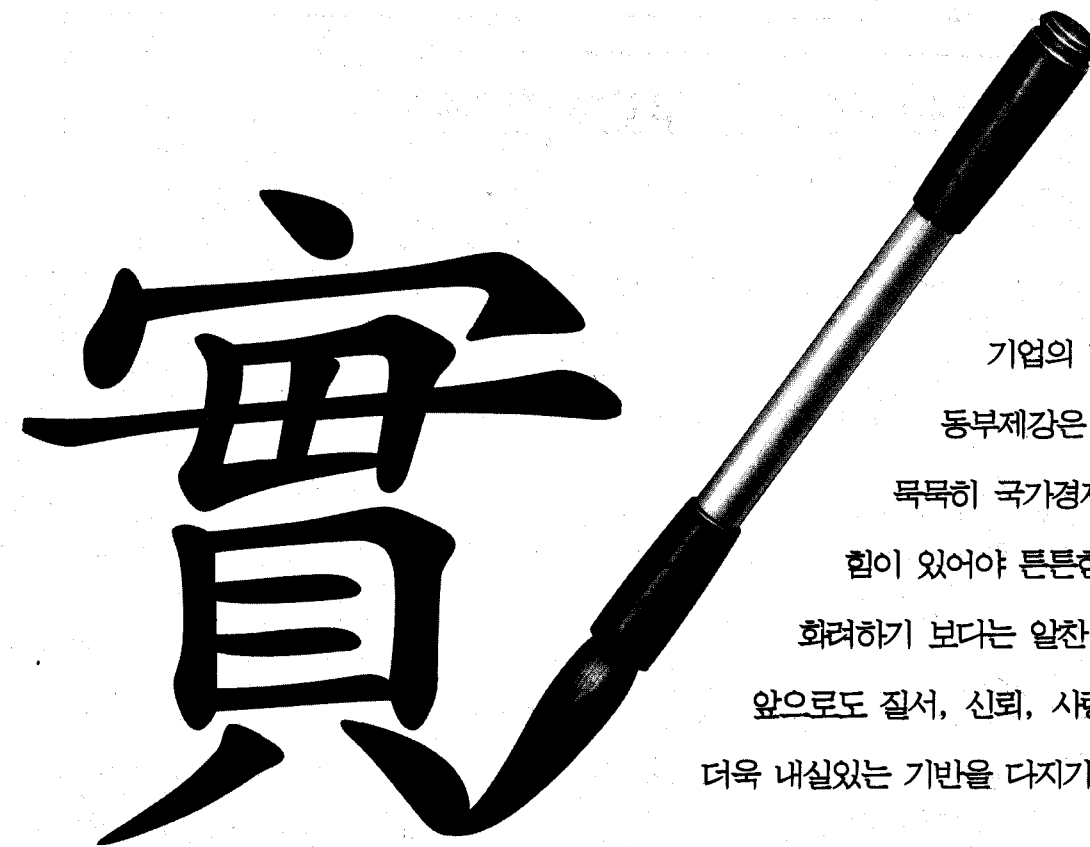
서울캠퍼스 인건복지위원회(인복위) 주최로 신이문역 앞 동문 자동차 학원에서 '자동차 운전 특강' 과정이 신설된다.

오는 12월까지 실시하게 될 이번 특강은 1종, 2종 스틱, 2종 오토 과목으로 나뉘어 1회당 50분의 수업이 진행된다.

수업 회수당 수업료는 아래 표와 같으며 접수는 복지회관 5층 앞천지서점에서 받는다.

	1종	2종 스틱	2종 오토
5회	8만원	8만원	8만원
10회	16만원	16만원	16만원
16회	22만원	22만원	22만원
20회			27만원
25회	31만원	30만원	

사랑과 믿음의 동부그룹



힘이 있어야
내실을 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부제강은 지난 15년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국가경제의 힘을 키워왔습니다.

힘이 있어야 튼튼한 기업이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기 보다는 일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온 동부제강 -

앞으로도 질서, 신뢰, 사랑의 그룹정신을 바탕으로 힘있는 기업답게

더욱 내실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동부제강